싼 값에 우후죽순… 中 전기차, 안전성·사후관리 과제

가격·기술 앞세워 국내 입지 확대
일부 차종 제동·조향 등 문제 발견
"가성비 전기차 점유율 상승은 사실"



BYD코리아의 21번째 승용 AS 거점 '용인 서비스센터' 외관. /BYD코리아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과 전동화 기술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는 가운데 차량 안전성과 사후관리 역량이 과제로 떠올랐다. 중국에서는 일부 차종의 제동·조향 관련 부품에 문제가 발견됐고, 국내에서는 사고수리 기간과 정비 거점 부족을 둘러싼 지적이 나온다.

1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전문 플랫폼 둥처디가 지난달 8일 공개한 긴급제동 시험에서 화웨이와 장화이자동차(JAC)가 공동 개발한 '마에스트로 V800'의 브레이크 페달 지지대가 부러졌다. 시속 100㎞에서 정지할 때까지 급제동하는 시험을 반복한 결과 시험 차량 3대 모두 같은 부위가 파손됐다. 제조사 측은 실제 고객 운행에서 같은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부품 설계를 개선하고 이미 출고된 차량에는 무상 개선 조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BYD는 지난 9월 브레이크 페달에 달린 부품이 파손돼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제동등이 계속 켜질 수 있다며 친(Qin)·탕(Tang) 계열 18만3211대를 리콜했다. 니오는 조향 보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파이어플라이 전기차 686대를 리콜했다. 체리자동차도 뒤 차축 용접 불량으로 주행 중 바퀴를 제어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차량 5만3882대를 오는 27일부터 리콜한다.

BYD코리아 관계자는 중국 내 리콜과 관련해 "국내 도입 모델은 대상 모델로 선정되지 않았다"며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는 모델은 각국 요구사항과 인증 기준에 맞춰 제품을 개발한 이후 순차적으로 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중국 브랜드의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BYD의 신규 등록은 1594대로 수입 승용차 브랜드 중 5위였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지커도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7X'를 출시하며 국내 시장에 진입했다.

판매 이후 사고수리 대응은 별개의 과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BYD 승용차 4종의 평균 사고수리 기간은 9.8일이었다. 국산 전기차 평균(5.3일)과 수입 전기차 평균(8.2일)보다 길었다.

BYD코리아 공식 목록에서 판금·도장 등 사고수리가 가능하다고 표시된 서비스센터는 전국 21곳 중 서울 양천, 인천 부평, 경기 안양·수원, 부산 사상 등 5곳이다. BYD코리아는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사고수리를 접수하고, 나머지 거점은 전문업체와 협력해 수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BYD코리아 관계자는 국내 물류센터와 딜러 서비스망에 주요 부품을 미리 확보해 두고, 국내 재고가 없을 경우 필요에 따라 항공 운송으로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BYD코리아는 연말까지 전국 서비스센터를 26곳으로 늘리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대림대 김필수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기존 글로벌 내연기관차 제작사들은 안전에 대한 전제 조건이 수십 년 동안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하더라도 함부로 시도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다"며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검수 절차, 시스템 등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품질을 기반으로 한 가성비 전기차가 본격 보급되고 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metroseoul.co.kr



(왼쪽부터)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S,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E 쿠페,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E.

벤츠코리아, GLE·GLS 부분변경 모델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프리미엄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LE와 GLE 쿠페, 플래그십 SUV GLS의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하며 대형 SUV 시장 공략에 나선다.

16일 벤츠코리아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더 뉴 GLE'와 '더 뉴 GLE 쿠페', '더 뉴 GLS'는 메르세데스-벤츠 SUV 특유의 디자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외관과 실내를 현대적으로 다듬었다.

벤츠코리아는 주행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렬 6기통 M256M EVO 가솔린 엔진과 9단 자동변속기(9G-TRONIC)를 조합했다고 설명했다. 에어 서스펜션과 가변 댐핑 시스템을 결합한 에어매틱(AIR MATIC) 서스펜션을 적용해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도 높였다.

차종별 차별화도 꾀했다. GLE에는 뒷좌석 전동 시트를 적용하고 GLE 쿠페에는 AMG 라인 스포츠 시트 패키지를 제공한다. 플래그십 모델 GLS는 6인승과 7인승 구성을 마련했으며 멀티컨투어 시트와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을 통해 탑승객 편의성을 강화했다.

국내 판매 라인업은 GLE 450 4MATIC AMG 라인, GLE 450 4MATIC 쿠페, GLS 450 4MATIC 등 총 6개 트림이다. 가격은 GLE와 GLE 쿠페 1억3670만~1억4080만원, GLS 1억5200만~1억612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LG, 수능 시험장 적정온도 지킨다

양사 시스템에어컨 사전 점검
시험 당일 긴급 대응체계 가동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들이 수능 시험장의 시스템에어컨을 점검하고 있다./삼성전자서비스



LG전자 하이엠솔루텍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시스템에어컨을 점검하고 있다. /LG전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장 냉난방 설비를 점검하고 시험 당일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16일 양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로지텍과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장 시스템에어컨을 사전 점검하고 있다. 시험 당일에는 전문 인력을 시험장 인근에 배치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원격진단을 활용해 이상 발생에 대응한다.

삼성전자로지텍은 냉난방공조(HVAC) 전담 엔지니어를 통해 실내외기 팬 작동 상태와 적정 온도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수능 당일 전담 서비스팀을 시험장 주변에 배치해 긴급 출장과 임시 사용 방법 안내 등을 지원한다.

원격 대응도 병행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가전제품 원격진단(HRM)' 서비스로 스마트싱스(SmartThings)에 연결된 시스템에어컨의 상태와 사용 이력을 AI로 분석한다. 상담사는 이를 바탕으로 제품 설정을 원격 조정하거나 조치 방법을 안내한다.

LG전자 하이엠솔루텍은 예비소집일 하루 전인 17일까지 실외기 팬 작동 상태와 과열 여부, 교실 내 난방 상태 등을 점검한다. 수능 당일에는 지역 센터별 대응 인력을 시험장 인근에 대기시키고, 콜센터와 학교 간 핫라인을 운영한다.

LG전자는 2024년부터 'LG 비컨 클라우드(LG BECON cloud)'로 서울 지역 주요 시험장의 시스템에어컨을 원격 관리하고 있다. 고장 징후나 난방 이상이 확인되면 학교에 안내한 뒤 현장을 방문해 조치한다. 또 해당 솔루션이 적용되지 않은 시험장에도 별도 무상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금호타이어,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 실증

서울 운행 자율주행버스 적용

금호타이어가 서울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버스에 스마트 타이어를 적용해 주행 중 수집한 타이어 정보를 차량 관리에 활용하는 기술을 검증한다.

금호타이어는 자율주행 전문기업 에스유엠(SUM)과 서울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동작구 자율주행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을 실증한다고 16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상용차 신차용 타이어 'KXA15'와 'KRS03'에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을 적용한다. 타이어 내부 센서와 차량 내 무선통신기를 통해 공기압과 온도, 마모 상태, 주행 중 타이어에 걸리는 하중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에스유엠은 실제 버스 운행 환경을 제공한다. 양사는 운행 중 수집한 센서 정보를 차량 관리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핀다.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되고 유지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사는 서울에서의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자율주행버스 사업에 스마트 타이어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승혁 기자 sh95@

LG전자-로봇산업진흥원,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맞손'

클로이드 국내 안전 시범인증 추진

LG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를 위해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과 품질 검증에 나선다.

LG전자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휴머노이드 로봇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로봇진흥원의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평가 시스템 구축과 관련 국제·국가표준 개발에 참여한다. 평가체계에 기업 현장의 품질 기준과 개발 경험을 반영하고 'LG 클로이드(CLOiD)' 등 자사 로봇의 국내 안전 시범인증도 추진한다.

클로이드는 바퀴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한 로봇이다. LG전자는 올해 초 제품 공개 당시 무게중심을 낮춰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 갑자기 매달려도 균형을 쉽게 잃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가정용으로 선보인 클로이드의 활용 범위는 제조현장으로 확대한다. LG는 지난 8월 연내 미국 테네시 공장 세탁기 생산라인에 클로이드를 투입해 실증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확보한 데이터와 실증 경험은 자체 로봇 인공지능(AI) 모델 고도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클로이드 실증과 함께 내년 1분기 공개를 목표로 엔비디아 플랫폼 기반의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도 추진한다. 앞서 LG는 지난 8월 엔비디아와 전략적 사업협력 협약을 맺고 개발 계획을 구체화했다. 해당 로봇에는 연산·제어용 모듈 '젯슨 토르'를 탑재하고, AI 모델 '아이작 그루트'와 안전 시스템 '헤일로스 포 로보틱스'를 활용한다.

이밖에도 LG전자는 핵심부품과 데이터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로봇 관절을 구동하는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고 'LG 데이터팩토리'를 통해 로봇 학습·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관리한다.

김창민 LG전자 품질경영센터장 전무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안전·품질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로봇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